



시멘트업계 화려한 부활의 날갯짓, 새해엔 희망을...



김정은 기자 / 한국경제신문 중소기업부

한 해가 또 지나가고 있다. 따지고 보면 안 그런 때가 어디 있었겠느냐는, 지난 2013년은 실로 다사다난했다. 국내 시멘트 제조업체에게는 특히 힘든 한 해였다. 수년째 지속되고 있는 건설경기 침체와 제조원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멘트시장의 지난해 악재는 끊이지 않았다. 고달픈 한 해를 끈기로 잘 견딘 시멘트업계 종사자들에게 '수고했다'는 인사를 건네고 싶다. 최근 철도 화물운송 요금이 오르면서 물류비용 증가가 불가피해졌다. 철도 화물운송 요금이 8% 인상되면서 업체별로 수십억 원의 물류비용 부담을 안게 됐다. 시멘트의 철도 운송 비중은 약 40%에 달하며, 공장이 해안가가 아닌 내륙에 있는 성신양회 등 4개 시멘트업체의 경우 비중은 65%까지 치솟는다고 한다. 지난 5년간 업계의 누적 적자는 9,000억원에 달한다. 가격 현실화에 실패, 2년째 정체되면서 담보 상태에

놓인 시멘트 가격도 제조회사들을 난감하게 하고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시멘트 내수가 가격은 세계 최저 수준이다. 유럽이나 일본 등의 6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제조사들은 이 같은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각종 원가절감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역부족인 상황이다.

업계 2위이자 국내 시멘트업계의 산증인인 동양시멘트가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것도 우울함을 더하는 소식이다. 최근 철도 파업으로 인한 불똥이 시멘트제조업체에까지 튀었다. 지난해 국내 철도화물 수송 상위 10개사 중 5곳이 시멘트 회사일 정도로 업계의 의존도는 높다. 연말 바쁘게 시멘트를 출하해야 하는 시기지만 평소보다 물량이 줄었다. 업계 종사자들이 올해 겨울을 유독 춥게 느끼고 있는 것도 그래서다. '추운 겨울'은 사실 시멘트업계 만의 이야기가 아니

다. 알고 보면 국내 대다수 기업들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기업들의 수익성은 나날이 나빠지고 있다. 한국거래소가 집계한 12월 결산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495개사의 지난 3분기 누적 순이익은 전년 동기보다 1조6,374억원 줄어 2.78% 감소했다. 반면 매출은 고작 2.13% 늘었다. 영업이익도 5% 증가하는 데 그쳤다. 원·달러 환율이 하반기 들어 급락하면서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 코스닥 기업의 경우 3개사 중 한 곳 꼴로 적자일 정도다. 기업마다 '위기상황'이라며 바짝 긴장한 모습이다. 국내 경제 전반에 경고음이 울려 퍼지고 있다. 주요 기업들의 CEO들조차 투자·고용 확대는 엄두도 못 낸다며 비상경영과 긴축경영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도 곳곳에선 어이없는 광경들이 펼쳐지고 있다. 정치판은 정치투쟁에만 관심을 보인다. 다급해진 정부가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 처리를 읍소하고 있지만, 국회에서 심의가 이뤄진 법안은 하나도 없다.

사실 정부도 어이없는 모습을 보이기는 마찬가지다. 새로운 규제를 꾸역꾸역 만들고, 기업들의 발목을 잡으면서 우리나라를 '기업하기 좋은 나라'에서 멀어지게끔 만들고 있다. 말로는 규제를 폐지한다지만 알고 보면 신설되는 규제가 훨씬 더 많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최근 규제개혁위원회 통계를 근거로 분석한 결과 정부 규제는 2008~2012년 사이에 2003건이나 순증했다. 183건이 폐지됐지만 1,650건이 신설됐고, 완화된 규제는 75건인데 반해 강화된 규제는 611건이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각종 조사결과는 좋지 않게 나타난다. 얼마 전 글로벌 경제전문잡지인 포브스가 145개국을 대상으로 평가한 기업하기 좋은 나라 순위에서 한국은 38위에 그쳤다. 작년 29위에서 9계단이나 후퇴했다.

국민과 기업이 살기 어렵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말이다. 이러다 우리 경제는 점점 '악순환의 늪'에 빠지게 될지도 모른다. 미국 일본 중국 등은 모두 경제를 살려야 한다며 난리인데 우리만 역주행을 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건설산업이야말로 시멘트업계 회복의 견인차

어려운 내수산업 중 대표적으로 꼽히는 업종이 건설산업이다. 국내 건설산업은 신규 공사물량 감소에다 유동성 부족 및 수익성 악화 등의 원인으로 인해 고사 위기에 직면해 있다. 지난 2012년 국내 건설수주는 2007년 대비 17조원이나 감소한 110조원 수준이었다. 2007년 8.3%에 달했던 공사 이윤율은 2%대로 급감했다. 이러한 건설산업의 어려움은 건설사의 위기뿐만 아니라 자재업체인 시멘트업계까지 영향을 끼친다. 건설산업은 그만큼 우리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경기를 더욱 살려야 한다. 내수 중심의 건설산업이야말로 시멘트업계 회복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다. 최근 건설경기의 회복을 조심스럽게 점치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일종의 청신호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도 가세했다. 서 장관은 얼마 전 "건설경기가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경제에서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꽤 크다. 지난 3분기 기준으로 GDP의 14%에 달한다. 희망적이라면 올해 건설투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건설수주도 오랜 감소세를 마치고 지난 10월 소폭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등이다. 미미하지만, 그래도 앞으로 기대를 걸어볼 만하다.

사실 국내 시멘트업계가 어떤 곳인가. 지난 반세기 동안 초고속 경제발전과 성장을 이끌어 오는 견인차 역할을 했다. 또 주택, 토목, 도로, 항만 등 사회간접시설과 밀접한 국가의 대표적인 '기간업종'이었다.

물론 과거 '부귀영화'를 누리며 평평거리던 시절로 회귀해야 한다는 말은 아니다. 그래도 최소한 우리의 대표적인 기간업종이 흔들리고, 업체들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각종 주변 리스크로 안절부절 못 하는 일은 적어도 있어선 안 되겠다. 업계에 산적해 있는 여러 문제들이 하나씩, 차근차근 풀려나갈 수 있게 되길 바란다. 시멘트업계가 오늘의 시련을 딛고 한 번 더 화려한 부활의 날갯짓을 할 날을 기다린다.

새해엔 희망을 기대해 본다. ▲